경북도, 토마토바이러스 확산 우려…농가 방역수칙 당부

농가 대상 농작업 위생관리 철저 당부
의심 증상 발견 시 신속한 신고 강조

전국으로 확산 중인 토마토갈색주름과실바이러스(ToBRFV)가 경북 농가에도 유입될 경우 피해가 커질 수 있다.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토마토·고추 재배농가에 출입 관리와 작업 도구 소독 등 방역수칙을 지키고, 의심 증상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토마토갈색주름과실바이러스는 검역관리급 병해충이다.

지난 10월 20일 전북 김제에서 국내 처음 확인된 뒤 발생농가에 대한 공적방제가 추진되고 있으며, 11월 12일 기준 충북·충남·전북·경남·부산에서 발생이 확인됐다.

이 바이러스는 토마토와 고추류(파프리카 포함) 등 가지과 작물을 감염시킨다.

잎과 과실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 상품성이 떨어지고, 농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바이러스는 감염 식물체의 즙액과 오염된 종자·묘·작업 도구, 작업자의 손과 의복 등을 통해 옮겨간다. 농작업 과정에서 사람과 도구가 이동하면 농장 안팎으로 빠르게 퍼질 수 있다. 감염 식물체는 잎이 노랗게 변하고 잎맥 주변에 변색과 괴사가 생긴다.

과실 표면에는 갈색 반점과 얼룩무늬가 나타날 수 있다.

증상만으로 감염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의심 식물체를 임의로 옮기거나 다른 식물체와 접촉하지 말고, 시군농업기술센터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해 진단과 대응 지침을 따라야 한다.

농가는 건전한 종자와 무병묘를 사용하고, 출입자와 외부 작업자를 관리해야 한다.

작업 전후에는 손과 작업복 위생을 지키고, 가위·칼 등 농작업 도구를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 의심 식물체의 임의 이동과 접촉을 삼가고, 재배 시설과 주변 환경도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토마토갈색주름과실바이러스(잎 모자이크, 주름)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토마토 재배농가에 예방·초기 대응 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예찰과 방역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농가별 철저한 예방 관리와 함께 의심 증상 발생 시 신속한 신고와 관계기관의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농가에서는 외부인 출입을 최소화하고 재배시설 내 위생관리를 생활화하는 한편,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작업자와 농작업 도구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조영숙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은 "토마토갈색주름과실바이러스는 접촉을 통해 빠르게 확산할 수 있고 현재까지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어 사전 예방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내 토마토 재배 농가에서는 온실 출입 관리와 농작업 도구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관계기관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명덕 기자
press582@nonguptimes.com



경남농기원, "반려견과 함께 농촌에서 치유"

11월 13일~12월 12일, 함양 꽃담 치유농장서

경상남도농업기술원(원장 정찬식)은 반려견과 보호자가 함께 참여하는 '치유농장 연계 반려동물 교감형 치유프로그램'을 11월 13일부터 12월 12일까지 함양군 꽃담 치유농장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농촌의 자연환경과 반려동물 교감활동을 연계해 정서적 안정과 유대감 증진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사람 중심의 치유농업을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함께하는 형태로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프로그램은 함양군 지곡면 꽃담 치유농장에서 반려견과 보호자 3쌍을 대상으로 총 8회 운영된다. 주요 활동은 교감 마사지, 허브·원예체험, 반려견 건강 간식 만들기, 노즈워크 장난감 제작, 허브 포푸리 만들기, 자연물 공예 등이다.

참여자들은 자연 속에서 반려견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하며 서로의 행동을 이해하고 유대감을 높이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프로그램 전후로 참여자의 스트레스와 정서적 안정, 반려견과의 유대감, 사회적 관계, 만족도 등을 조사한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와 치유농업 서비스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분석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운영은 치유농장이 보유한 식물·허브 등 농촌자원과 반려동물 교감활동을 연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남농기원은 운영 결과와 참여자 의견을 분석해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향후 반려동물 교감형 치유프로그램 개발과 서비스 확대에 활용할 방침이다.

경남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농촌의 자연 속에서 함께 교감하며 치유농업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사회적 수요에 맞춰 치유농업 서비스의 영역을 넓히고, 다양한 대상자가 농업·농촌자원을 통해 건강과 휴식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진아 기자
midal0210@naver.com

2026년 남원명품농업대학 제17기 졸업식 성료



▲2026년 남원명품농업대학 제17기 졸업식 성황리 개최

전문인재 122명 배출

남원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1월13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미래 첨단 농업과 지역 농업을 이끌어갈 정예 인력을 배출하는 '제17기 남원명품농업대학' 졸업식을 개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졸업식에는 졸업생 122명과 남원명품농업대학 학장이신 양충모 시장, 한명숙 의장을 비롯해 내외 귀빈이 참석해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에 선 졸업생들을 따뜻하게 격려 했다.

이번 제17기 과정을 마친 졸업생은 총 122명으로 지난2월 면접과정을 거쳐 입학한 이후 약 9개월간에 학업에 매진해왔다.

이들은 청년 스마트팜 특별반 기초부터 심화, 발효식품, 복숭아, 도시농부, 스마트팜 토마토반까지 6개 학과에서 현장실습 위주의 커리큘럼, 품목별 재배기술 농업 비즈니스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어 실전형 인재를 양성하는데 주력했다. 이날 학업 우수상으로 청장상, 시장상, 의장상, 공로상등을 수상하며 영예를 안았다.

남원농업대학장(시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졸업생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현장과 행정이 함께 뛰겠다고 밝히였다.

한편 남원명품농업대학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총2,118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며 지역 농업인재 양성의 산실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졸업생들은 향후 총 동문회 및 지역 농업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협력하며 지역 농업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영란 기자
yungran528@hanmail.net

대전 동구, '공공비축미곡 건조벼' 매입 실시

산내동 2개 농가 대상 8.8톤 매입

대전 동구는 13일 산내농협 경제사업장(낭월동)에서 지역 농가의 소득 안정과 쌀 수급 조절을 위해 2026년산 공공비축미곡 건조벼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공공비축미곡 매입은 자연재해 등 식량위기에 대비해 정부가 일정 물량의 쌀을 비축함으로써 쌀 수급과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한다.

올해 매입에는 산내동 2개 농가가 참여했으며, 매입 품종은 삼광벼와 친들벼로 총 8.8톤(800kg 톤백 11개)을 매입했다.

매입 물량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의 품질검사를 거쳐 등급을 판정하며, 구에서 매입 확인증을 발급하면 산내농협을 통해 대금이 지급된다.

매입대금은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800kg당 12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12월 산지 쌀값을 반영해 연말에 잔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경수 기자
kyungsuk@nonguptimes.com



▲산내농협 경제사업장서 공공비축미곡 건조벼 매입이 진행되고 있다

청도 김치, 튀르키예 식탁에 오른다!

농업회사법인 본가, 김치 10톤 수출 선적

청도군은 11월 13일 농업회사법인 본가(주)(대표 홍순욱)에서 튀르키예 수출용 김치 10톤을 선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 물량은 10톤(1kg 파우치 제품 1만 개)으로, 수출액은 약 4천500만 원 규모다.

농업회사법인 본가(주)는 2,645㎡(800평) 규모의 자체 공장에서 배추김치·총각김치·파김치 등 김치 제품 13종을 특허 기술을 적용하여 저장성을 높이고 숙성속도를 늦춰 올해 제15회 대한민국 김치품평회에서 총각김치가 최고상인 대상(국무총리상)을, 배추김치가 장려상을 수상하며 제품의 맛과 품질을 인정받았다.

또한 국내 대리점과 군납을 통해 제품을 공급하고 캐나다와 두바이, 일본, 미국 H-마트 등 해외시장에도 김치를 수출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튀르키예 수출을 통해 기존 수출시장에 더해 해외 판로를 한층 넓혀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박권현 청도군수는 "대한민국 김치품평회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청도 본가 김치가 튀르키예 소비자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식품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과 수출 확대를 지원해 청도 농식품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진아 기자
midal0210@naver.com